



+ 김효진 · 월간 '라 뮤지카' 편집장/미술칼럼니스트

EGON SCHIELE

클림트의 정신적 후계자로서, 표현주의의 새로운 미학을 선보인 에곤 쉴레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그려냈다. 불안한 영혼의 기억은 그의 화폭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는 에로시티즘이란 주제 의식의 진지한 탐구, 리비도와 로고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만의 오브제를 꼬집어내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인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망막에도 그의 회화는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송곳 같은 개성이 강하게 포착된다.

쉴레는 20세기 초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수도 빈을 감돌던 그 정신적 공허와 불안한 공기를, 응축되고 억압된 인체의 묘사를 통해 과감하게 표현함으로써 논란의 한가운데에 폭풍처럼 등장했다.

1890년 여름, 다뉴브 강변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철도역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그림을 아버지가 태우는 사건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다. 1905년 아버지가 정신장애와 매독으로 죽음을 맞이하자, 두 여동생과 함께 불우한 사춘기를 보내며 성장하게 되었다. 쉴레는 그의 사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왜 고귀하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가 늘 계셨던 곳, 아버지를 상실한 고통이 느껴지는 장소에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나는 모든 생명은 영원하다고 믿는다. 내가 묘지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항상 죽음에 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1906년 빈미술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해인 1907년에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 예술적 감화를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클림트의 회화적 특성인 굴곡진 심한 인물의 선, 화려한 장식, 덧칠에 의한 빛의 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등을 모방한다.

이때 나온 작품이 '검은 모자를 쓴 여인의 초상(b,1909)'이란 그림으로 클림트가 그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만약, 쉴레가 클림트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처럼 에곤 쉴레가 하나의 전설로 남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Self Portrait, 1912

그에게 1910년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구어낸 시점으로, 이때부터 여백의 은유(등을 보이고 선 남성누드, 1910), 의식의 표류(입을 벌린 자화상, 1910), 꿈틀거리는 성욕(누드, 1911)과 내면으로의 침잠(어머니와 아기, 1910), 그리고 뒤틀린 자아의 변형(남과 여, 1914/손가락을 벌린 자화상, 1911)으로 애곤 쉴레의 전설을 만들어 간다.

그의 풍경화들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쉴레의 작품 세계 속에서 풍경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에게 풍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 이상을 의미했다.

“마음에 새겨진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봄날 나무들이 줄지어진 날찍한 풍경과 휘몰아치는 폭풍우에 관한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신비한 꽃들과 수줍은 정원사의 냄새를 맡아보았고 불그스레한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새들의 소리를 들었다. 가을이 찾아올 때면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봄에는 삶의 찬가를 꿈꾸었고, 찬란한 여름에는 의기양양했으며, 새하얀 겨울을 그릴 때면 웃음을 터트렸다.”, “나는 기꺼이... 폐허가 된 도시와 풍경의 슬픔과 운명을 담담한 마음으로 보고자 했다. 내 마음이 뒤틀려서도 아니고 황량한 풍경으로 내 자신을 애써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게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인간 존재에는 많은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절기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더 나아가 도시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쇠퇴하는 순간은 가장 아름답다. 가을이면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해 우리는 단지 자상의 순례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도시를 세운 이는 카인이며, 카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1911년 그의 애인이자 그림 모델이었던 발레리와 함께 빈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크루마우로 향한다. 보헤미안의 감수성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1912년 빈에 정착한 쉴레는, 바로 그해 도색적인 그림을 전시했다는 혐의로 감방에 3일 동안 갇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음의 글은 그가 감옥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다.

“내게 예술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생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심층으로 가라앉기를 원한다.”

쉴레가 화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디 악티온(Die Aktion)’이라는 예술잡지에 그에 대한 글이 실리게 되면서부터였으며, 바로 이 해에 켈른에서 대규모로 열린 국제적인 전시회인 “존더분트”에 초대되었다.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며, 이 전쟁에 에곤은 뛰어들었으나 후방에 배치되어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 1915년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발레리와 헤어지고 에디트란 여인과 결혼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에곤 쉴레는 200여편에 달하는 그림(유화 150여점, 그 외 데생과 과슈, 수채화)을 남기고서,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 이것이 에곤 쉴레의 전설의 시작이었으며, 쾰한 두 눈, 고열로 인해 떨리는 손, 헝클어진 머리, 무어라고 자꾸 중얼대는 입술이 그의 자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했던 그는 자신의 방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몇 점 남기기도 했다.

에곤 쉴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에 저항하고 스스로가 미적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의식의 방편으로서 그만의 터치로 원시적인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화풍을 창조하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나르시즘의 반영으로서 거울형상의 이미지가 감돌고 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에 의하면 거울은 그리스 신화 속의 나르키소스가 만났던 호수의 대치물이라고 한다. 호수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홀딱 반해 버린 나르키소스가, 호수 속으로 들어가 결국 익사한다는 내용의 신화는 수선화의 꽃말인 자아도취의 원형이 되었다.

쉴레가 남기고 간 약 150여점에 달하는 유화 중, 100여편이 자화상의 형태이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자아의 일그러진 변형으로서 그의 그림이 남겨졌다는 것이다. 서구 회화사에 있어 자화상의 역사는 르네상스시대에 활약했던 알브레히트 뒤러로부터 발전되었다.

쉴레가 1911년 9월 오스카 라첼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화상에 대한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의 성광(聖光), 성체(聖體)는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성장한 것이다. 마치 세계에 관한 통찰력처럼.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더 앞서 생산하며, 불확정하게 더욱더 나 자신 속에서부터 빛나고 있다. 사랑으로 그것은 전부이며 나는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고 살아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아왔던 새로움을 더욱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 속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는 것, 나를 본능적으로 유혹하게 만드는 것에 나를 이끈다.”



① Embrace(Lovers II), 1917
② Self Portrait, 1912
③ Small tree in the late autumn, 1911



그는 마치 예언가처럼 말한다. “지속적인 가치 속으로 전속되어진 나의 존재, 나의 타락한 비존재는 곧 최고의 혹은 최상으로 교육받은 존재의 거대한 힘을 행사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할 것이다. 심지어 더욱 더 멀어지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정성은 나의 가설로부터 살아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니체의 초인사상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으며, 쉴레 자신도 니체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쉴레가 남긴 자화상에서 승천하지 못한 용의 기운을 느낀다. 1911년에 친구에 보낸 편지에는 자기연민이 가득하다.

“왜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지.. 나는 며칠 동안이나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두루마리 종이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전시회를 열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작업에 몰입하고 싶은 일생일대의 이 시기에.. 돈을 빌려야 하다니.. 사람들은 얼마나 무심한지..”

1년 후 또 다른 편지에서도 쉴레는 비슷한 불평을 토해낸다.

“왜 내게는 빈센트 반 고흐의 테오 같은 형제나 후원자가 없는 걸까요?”, “이런 후원자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더니, 정말이지 슬픈 일이군요”

“내성적 우울”이란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쉴레의 자화상들은 독특한 포즈와 분열된 자아의식의 불안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망막에 하나의 얼룩을 남긴다. 그의 그림에서 심하게 굴곡진 인체의 표현은 일그러진 자아의 반영임과 동시에 가치관의 혼돈에 관한 저항 심리다. 오브제에 관한 에곤 쉴레의 관찰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이고 탐미적이라기보다는 미학의 반대편에 서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생애 내내 자신을 옹가맨 원초적인 것에 대한 떨림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으로,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그렇게 반복된 생의 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몸부림은 존재의 떨림으로 연결되고, 그 떨림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인간의 육체에 관해 탐구하게 하였으나, 그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가졌다. 에곤 쉴레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봉우리를 돌고 있는 원의 운동성에 자신의 불안한 의식을 담아내려 했다. 실체와 허상의 엇갈림, 그리고 존재의 삐걱거림은 인간의 육체라는 구체성을 통해 우리 앞에 확인시키려 했고, 그 시도는 지금 우리 앞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흔들리는 의식의 불균형으로 그려내었다. 쉴레는 그의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곧, 아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의 예술을 찬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 그림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방해하고, 오해하게 될까요? 언제까지나 나에게 대한 오해는 계속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찬사나 오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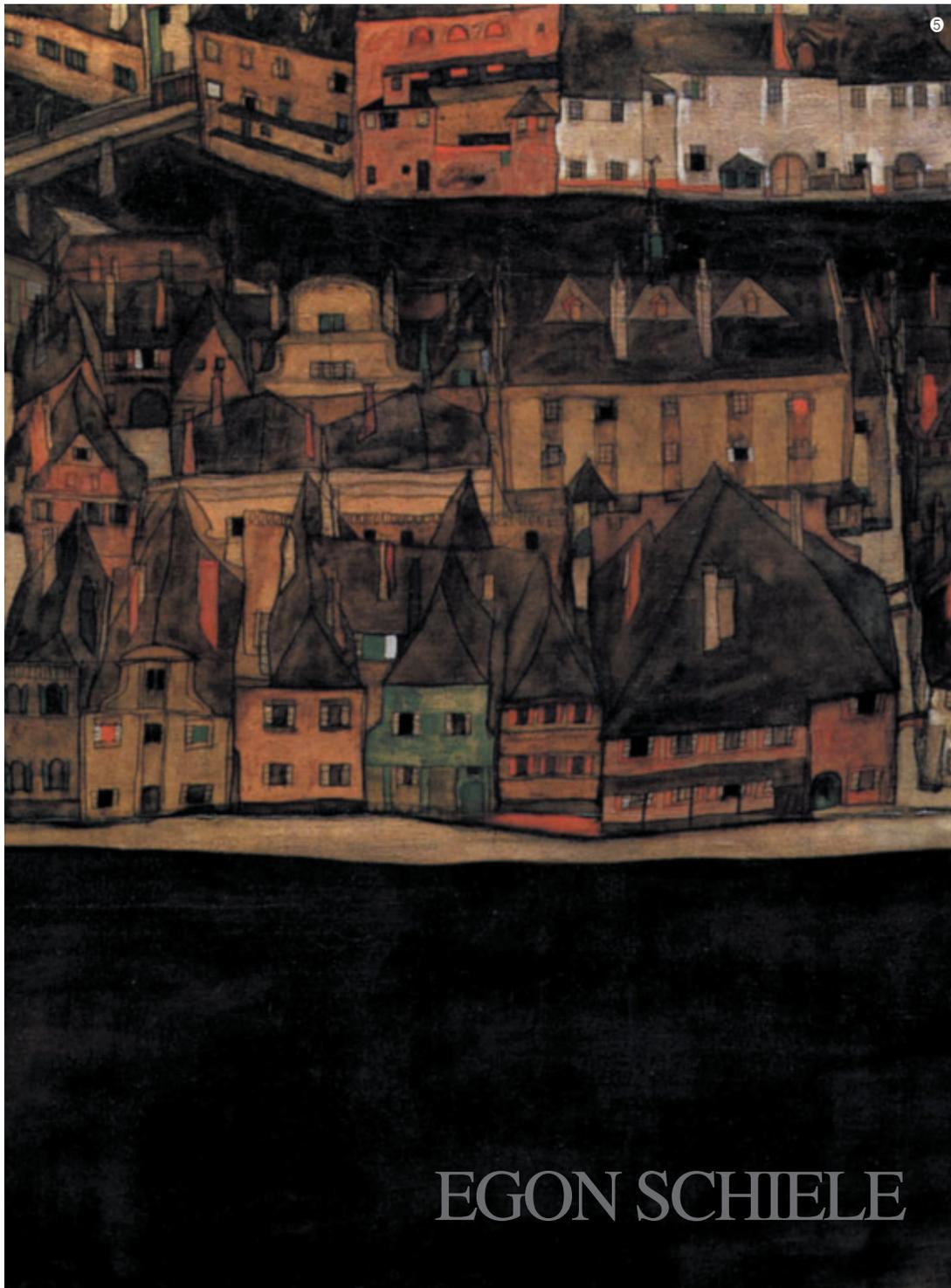
④ Four Trees, 1917

⑤ The Little City II(View from Bohemian Krumlov), 1912~1913

⑥ Self Portrait, 1910



6



5

EGON SCHIELE